

# GROVERSE NEWS

2025.4.4(금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## [주요 내용]

### ○ 탄핵·수사 관련

-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...파면 시 60일 내 대선 실시 (요미우리)
-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, 운명결정할 현재 선고 앞뒤 (Reuters/AP/아사히/닛케이)
- 한국 경찰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계 태세 격상 (AFP/Reuters)
- 회전문식 권력 교체를 부르는 한국 헌법 재판소 (FP 기고)

### ○ 제주 4.3 추념식

- 제주도, 비상계엄 그림자 드리운 가운데 냉전 시대 학살 희생자 애도 (UPI)

### ○ 미관세 조치 대책

- 한덕수 권한 대행, 미국 발 관세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지시 (Reuters)
- 한국, 미관세 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포함 '긴급 지원' 제공 예정 (WSJ/FT)
- 한국, 미관세 논의 위해 통상 본부장 방미 추진 (Bloomberg/Reuters)

### ○ 미국발 관세

#### [해설 논평]

- 트럼프의 '상호' 관세 계산법은 전적으로 무역 적자에 관한 것 (Bloomberg)
- 인도 태평양 미 동맹국들, 트럼프의 '해방의 날' 관세에 충격 (WT)
- 트럼프 관세로 동맹국과 미국의 간극 확대 (NYT/Bloomberg)
- 트럼프 관세, 세계화 시대의 막을 내리려고 하다 (WSJ)
- 트럼프 관세, 동맹국은 포함하고 러시아·북한은 제외 (WP/Reuters)

#### [주요국 반응]

- 한은, 미국 발 관세 영향으로 경제 여건 악화 경고 (Reuters)
- 한은, "예상보다 강한"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변동성 경고 (Bloomberg)
-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각국의 대응 (WSJ)
-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 및 대책 (Reuters/UPI)
- 자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거, 일본은 각국과 연대 대응해야 (요미우리 사설)

#### [기업·증시 영향]

- 기아차, 트럼프 관세로 미국 전망 어두워진 가운데 유럽 주목 (Bloomberg)
- 아시아에 대한 미관세 폭풍, 삼성과 나이키 덮쳐 (Bloomberg)
- 인도 제약주·한국 방산주, 미관세 영향 속 강세 보여 (Bloomberg)

- 한미일 외교장관회의
  -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핵·러북 협력에 우려...대북 공조 강화 약속 (교도통신)
- 반도체
  - 삼성, 침체된 반도체 사업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눈 돌린다 (FT)
- 북한
  - 수십억달러규모암호화폐를훔치는북한해커들, 정권생존의숨은동력 (WSJ)
  - 마라토너들 코로나 이후 열리는 첫 평양마라톤 참가 위해 북한행 (AFP)
- 인터뷰
  - 한국은정치적교착상태에서벗어날수있을까? - 김진홍목사인터뷰(UPI)
- 사회
  - 여배우 김새론의 자살 이후 연애 추문에 비난 쇄도 (NYT)
  - '김수현방지법' 청원, 의제강간연령상향촉구(SCMP/AP)

## 탄핵·수사 관련

### <요미우리 4.4 서울발> 헌법재판소,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...파면 시 60일 내 대선 실시

-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,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
- 계엄령 선포의 위헌·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됨.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됨
-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.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

### <Reuters 4.4 서울발>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, 운명 결정할 헌재 선고 앞뒤

#### (Joyce Lee, Ju-min Park)

- 한국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비공개 심리를 이어온 끝에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선고할 예정
-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판결 지연은 정당 간 긴장을 고조시켰고,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등 국민 사이의 분열도 깊어짐
- 전문가들은 4일 선고가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긴 어려우며,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

-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.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%가 윤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

\* <AP> 한국 헌법재판소, 4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결정

- <아사히>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오늘 선고...윤 대통령 출석은 보류, 휴관 및 휴교 경계 최대급
- <닛케이> 한국 탄핵 오늘 선고, 판단 앞두고 경계 경찰관 총동원 나서

### <AFP 4.3 서울발> 경찰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계 태세 격상

- 경찰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, 3일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'을호비상'을 발령
-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%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'갑호비상'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
- 경찰은 헌법재판소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금지하는 '진공화' 작업을 완료

\* <Reuters> 한국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비태세 강화

### <FP 4.3 서울발> 회전문식 권력 교체를 부르는 한국 헌법재판소 (Michelle Kim 미 변호사)

-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일련의 판결 중 하나로, 4일 내려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역사적 결정으로 그 정점에 이를 전망
-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으나,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안 처리 지연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
-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. 한 총리의 혐의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
- 현재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음.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시 권력 공백을 막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
- 이번 결정에 충격받은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요구하는 최후의 총력전에 돌입

## 제주 4.3 추념식

### <UPI 4.3 제주도발> 제주도, 비상계엄 그림자 드리운 가운데 냉전 시대 학살 희생자 애도 (Darryl Coote)

- 수천 명의 참석자가 제주4.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회 제주4.3 추념식에 참석. 1947~54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3만 명을 추모

- 3일 열린 추념식은 오전 10시 묵념의 시간으로 시작한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연설
- 한권한대행은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딘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

## 미국 관세조치 대책

### <Reuters 4.3 서울발> 한덕수 권한대행, 미국발 관세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지시 (Ju-min Park)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
-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전략 TF를 주재하고 “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”을 지시
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“유감”이라며,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고위급, 실무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

### <WSJ 4.3> 한국,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포함 ‘긴급 지원’ 제공 예정 (Jihye Lee)

- 한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자동차 등 산업에 ‘긴급 지원’을 제공할 방침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“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,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”고 강조
-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신규 관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이날 오후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

\* <FT> 한국, 경제에 큰 부담' 줄 미 관세에 대응해 경제적 지원 약속

### <Bloomberg 4.3> 한국, 미 관세 논의 위해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(Soo-Hyang Choi)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의 일부로 한국에 26%의 관세를 부과 하면서, 예상보다 나쁜 결과에 한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고 원화 역시 압박
-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25%라고 발표했으나,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%로 적시

- 잇따른 긴급회의 끝에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“정부가 가능한 한 신속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할 계획”이라고 발표

\* <Reuters> 한국, 관세 관련 미 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

## 미국발 관세

[해설 · 논평]

### <Bloomberg 4.3> 트럼프의 ‘상호’ 관세 계산법은 전적으로 무역 적자에 관한 것 (Josh Wingrove)

-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도입하면서, 다른 나라의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에 맞추겠다는 공약과 달리, 기존의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
- 트럼프식 상호관세율 계산법은 2024년 미국의 개별 국가 대상 상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, 그 수치를 반으로 나누는 방식
- 예컨대,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,950억 달러, 대중국 수입액은 4,380억 달러로, 이를 적용하면 34%의 관세율이 도출됨
-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25% 관세율도 산정됨. 미국무역대표부(USTR)는 이 방법으로 무역 적자를 낮춘다는 트럼프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설명

### <WT 4.3 서울발> 인도태평양 미 동맹국들, 트럼프의 ‘해방의 날’ 관세에 충격 (Andrew Salmon)

- 3 일 오랫동안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새로운 미국 관세에 대한 소식을 접한 동아시아 주요 미 동맹국들은 충격에 휩싸였음
-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하에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에 10%의 관세가 부과됐지만,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일부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됨
-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미군 주둔지인 한국과 일본에는 각각 26%와 24%의 관세를 적용
-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다소 놀랐다고 언급

### <NYT 4.3 브뤼셀도쿄발 > 트럼프 관세로 동맹국과 미국의 간극 확대 (Jeanna Smialek & Martin Fackler)

-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 하면서, 미국과 주요 동맹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세계 경제 질서도 재편되고 있음

-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. 특히 일본 정부는 면제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
-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며,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
-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입장으로, 이들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
- 이들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공약 유지를 촉구해야 하는 현실과 동시에,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저울질해야 하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직면

\* <Bloomberg> 우호국에서 적국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이지 않는 트럼프 관세

**<WSJ 4.3> 트럼프 관세, 세계화 시대의 막을 내리려고 하다 (Jason Douglas & Tom Fairless)**

-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대 최대 관세 공세는 미국과 해외 기업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.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
- 트럼프의 '메이드 인 아메리카' 야심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등 저비용 제조국과 한국, 일본 등 미 동맹국에 쏟아졌던 투자의 흐름이 끊길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
-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몇 주간 애플, 현대차, 존슨앤존슨 등 다수의 기업이 미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음
- 이는 다국적 기업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
-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관련 비용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과제

**<WP 4.3> 트럼프 관세, 동맹국은 포함하고 러시아북한은 제외 (Aaron Blake)**

- 3 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는 이스라엘과 베트남 등 주요 동맹국에 의외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반면, 러시아, 쿠바,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제외
-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,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약 12곳. 그중에는 바티칸, 쿠바, 북한, 러시아, 벨라루스 등이 포함
-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"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제재로 미러 간 무역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"이라며 북한 등도 마찬가지로 설명
- 그러나 미국과 무역이 거의 없는 곳도 관세 목록에 포함된 점은 의문. 한 예로, 호주 영토지만 무인도인 허드섬·맥도널드 제도에 10% 관세가 부과됨

-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평화협상 국면에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

\* <Reuters> 트럼프 관세 폭탄을 비껴간 러시아북한쿠바

## [주요국 반응]

### < R e u t 서울발> ~~한글~~, ~~미국발~~ 관세 영향으로 경제 여건 악화 경고

#### (Yena Park & Jihoon Lee)

-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미국발 관세로 인해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고 밝힘

### <Bloomberg 4.3> ~~한글~~, “예상보다 강한”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변동성 경고

#### (Soo-Hyang Choi)

-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, “미국의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높고 대상국도 광범위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”라고 평가
- 유 부총재는 “향후 주요국들의 대응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”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

### <WSJ 4.3>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각국의 대응 (Chelsey Dulaney)

-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충격을 드러냈으며, 일각에서는 보복을 다짐했고 다른 이들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아직 남았기를 기대
-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장은 EU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, 미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
-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의 영향을 받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에 관세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이 자동차 산업과 관세에 노출된 그 외 산업에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

### <Reuters 4.3>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전 세계 대응과 대책 (Brendan O'Boyle)

- 한국: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동차를 포함한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지시
- 유럽연합: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 철강 관세에 맞선 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,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
- 중국: 트럼프 대통령이 34% 대중국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, 중국 상무부는 “보복관세에 단호히 반대한다”며 “권익 수호를 위해 보복 조치할 것”이라고 밝힘

- 일본: 일본은 24%의 보복관세에 직면한 가운데, “과감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”이라고 밝힘
- 캐나다: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“이러한 관세에 맞서 보복 조치로 싸울 것”이라며, “목적의식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”이라고 강조
- \* 일본 미 무역 파트너,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 예정

**<요미우리 4.4 사설>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거, 일본은 각국과 연대해 대항책 모색해야**

-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. 일본은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 국제 협력 체제 구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
- 미국에 단순히 재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사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. 일본은 **EU**를 비롯한 각국 및 지역과 연계해 미국에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함
- 동시에 무역 경쟁력도 강화해야 함.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은 물론 인도, 아세안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국 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함
-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름.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연이은 관세 부과와 상호 관세 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

**[기업·증시 영향]**

**<Bloomberg 4.3> 기아차, 트럼프 관세로 미국 전망 어두워진 가운데 유럽 주목 (Heejin Kim)**

- 기아차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반대 정책으로 미국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목표
-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(EU) 내 전기차 판매량을 EU 총 판매량의 60%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서울모빌리티쇼 인터뷰에서 설명
- 유럽으로의 관심 전환은 기아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음

**<Bloomberg 4.3> 아시아에 대한 미 관세 폭풍, 삼성과 나이키 덮쳐 (Katia Dmitrieva, James Mayger)**

- 전 세계 기업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조용히 생산 기지를 이동
- 이번에 미 백악관은 기업의 탈출로를 차단하기로 결정. 이는 금융시장, 전 세계 거래 시스템, 세계 경제 전반에 더 깊고 장기적인 고통을 예고

- 3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중국을 대신해 주요 대체 생산 허브가 된 다수의 국가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
- 애플, 삼성, 나이키와 같은 기업에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46%로 상승

**<Bloomberg 4.3> 인도 제약주, 한국 방산주, 미 관세가 시장에 영향 미친 가운데 강세 (Alex Gabriel Simon)**

-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아시아 지역에서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음
- 인도 제약사, 한국 방산업체, 말레이시아 장갑 제조업체 주가는 3일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추세를 역행해 강세를 보임
-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방위주 상승세를 견인.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수혜주에 포함됨

**한미일 외교장관회의**

**<교도통신 4.3 브뤼셀발> 한미일 외교장관, 북한 핵·러북 협력에 우려...대북 공조 강화 약속**

-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3일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,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
- 3국 장관은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진전에 대해 '심각한 우려'를 표명하고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
-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, 짧은 시일 내 연속적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3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

**반도체**

**<FT 4.3 서울발> 삼성, 침체된 반도체 사업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눈 돌린다 (Christian Davies, Song Jung-a & Zijing Wu)**

- 삼성은 미 생산 시설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지만, 미국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, 부진한 반도체 사업부 지원을 위해 중국 기술 그룹에 손을 내밀었음
- 삼성은 지난달 중국 기업들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2023~2024년 대중 수출이 54%나 급증했다고 발표

- 삼성에서 중국 매출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미중 간 민감한 기술 개발을 둘러싼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

## 북한

**<WSJ 4.3 싱가포르·서울발> 수십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를 훔치는 북한 해커들, 정권 생존의 숨은 동력 (Patricia Kowsmann & Timothy W. Martin)**

- 최근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에서 2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사건으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암호화폐 탈취 세력임이 분명해짐
- 북한은 지난 10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, 해킹 방식은 끈질기고 대담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
- 이 불법 자금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되며, 국제 제재로 인해 제한된 경제 자원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
- 북한 해커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며,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이버 공격 관련성을 부인

**<AFP 4.3> 마라토너들, 코로나 이후 첫 평양마라톤 참가 위해 북한행**

- 북한 전문 여행사에 따르면, 해외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들은 6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
- 이 마라톤은 1912년 출생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부로 개최되며, 북한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스포츠 행사
- 마라톤은 6일 개최될 예정이며, 엄격하게 통제되는 평양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

## 인터뷰

**<UPI 4.3> 한국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? - 김진홍 목사 인터뷰 (Youngjun Kim)**

- 김진홍 목사는 기존의 한국 보수 진영이 한미 동맹과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,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외면해 왔다고 지적
- 김 목사는 보수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분열이며, 기존 보수 정당과 시민운동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만 정치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

**<NYT 4.3 서울발> 여배우 김새론의 자살 이후 연애 추문에 비난 쇄도**

---

**(Choe Sang-Hun)**

- 지난 2월 24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배우 김새론은 생전에 비해 더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
-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연애를 시작했고, 김수현이 설립한 기획사가 김새론에게 상환 불가능한 채무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
- 이 추문은 이미 김수현의 경력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며, 개인사가 엄밀히 검증받는 한국 유명인들이 처한 위험성을 부각시킴

**<SCMP 4.3> '김수현 방지법' 청원, 의제강간 연령 상향 촉구**

-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한국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-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**16세**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됨
- 해당 청원은 3일 4만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. 4월 말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

\* **<AP>** 한국 사회는 위기에 처한 연예인을 어떻게 대하는가? 새로운 사건이 의문 제기